



# 미국 드라마 속 아시아인 고정관념 고찰 -“Grey Anatomy”의 Cristina Yang 의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

「English Discourse Analysis」과 「영어데이터분석기초」 강의페어링  
영어영문학과, 이지현, 201721601. 이진희, 이해경, 오하영 교수님 지도

## 목적

아시아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을 매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. 드라마 “Grey’s Anatomy” 의 Cristina Yang을 통해 아시아인의 고정관념을 살펴본다.

## ‘English Discourse Analysis’ 에서의 강의페어링

**Sapir-Whorf Hypothesis** : 언어는 인간의 사고나 사유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.

**담화 분석** : 담화 분석은 담화 상황과 사용되는 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. 발화를 사회적, 문화적, 개인적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. 담화 분석을 통해 크리스티나와 그의 주변인들의 담화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한다.

## ‘영어데이터분석기초’ 에서의 강의페어링

**프로그래밍 언어 R**을 이용하여 “Grey’s Anatomy”의 대본을 크롤링한다. 수집한 파일에서 캐릭터 이름과 대사를 나누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는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한다. 그런 다음, 크리스티나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한다.



## 고정 관념 강화

### 사회성

# 요리를 못하는 친구 ‘이지’를 도와주는 애인 ‘버크’를 보고, 크리스티나는 결국 자리를 비운다. 이후 버크가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

(S2E09: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)

**B:** 친절하게 굴었어.

**C:** (미소 지으며) 응, 알고 있어.

**B:**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안하는 편이네. 그리고 알기 어려운 사람이야.

**C:** 맞아.

**B:** 우리 엄마는 앨라배마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.

**C:** 오후에 이물질 제거술을 했어. 환자가 치골을 삼켜서.

제 3자 입장인 이지는 크리스티나를 알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감정을 숨긴 채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. 이러한 상황은 연인 관계인 ‘메리디스’와 ‘데릭’사이에서도 발생한다. 비슷한 상황인데도 크리스티나에게 유독 이를 문제삼고 ‘알기 어려운 사람’ 이라고 규정한다.

### 워커 홀릭

#입원한 상태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환자를 돌보러 간다.

(S2E04: 믿고 싶지 않은 현실)

**I:** 의사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걸 행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. 우리가 제 잘난 맛에 사는 일 중독자는 아니잖아.

**C:** 우린 일 중독자야.

(S1E05: 신나게 춤춰봐)

### 남녀 관계

크리스티나는 자신이 버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지 못한다. 모든 솔직하고 당당한 크리스티나가 남녀 관계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.

(S3E25: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나?)

## 분석 결과

그레이 아나토미에서 기존 매체에서 드러난 고정관념이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. 특정 상황에서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일지라도, 아시아인에게는 그것이 아시아인만의 특징인 것처럼 규정화하고 과도하게 부각시킨다. 반면, 크리스티나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다. ‘아시아인들은 ~ ’ 과 같은 일반화에서 벗어나, 아시아인을 각 개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인다. 매체에서 인종에 관한 편견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시청자들은 그대로 수용하고 이는 결국 인종 차별적 인식으로 자리 잡는다. 본 연구를 통해 평등한 시각에서 바라본 아시아인 캐릭터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.

## 고정 관념 완화

### 모녀 관계

# 크리스티나와 엄마 ‘헬렌’이 말다툼하는 상황 (S2E04: 믿고 싶지 않은 현실)

**C:** 20분이면 돼. 20분만 조용히 해줘.

**H:** 내가 키운 딸은 엄마의 도움을 감사히 여길 거야.

**C:** 엄마가 키운 딸은 엄마가 나갔으면 좋겠다.

(.....)

**H:** (우는 딸을 보고)조만간 터질 줄 알았지. 시간 문제였어.

**C:** 가만 안 들거야. 나가!

크리스티나는 엄마에게 무조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, 다소 거칠고 직설적으로 말한다. 아시아권 모녀의 소통이 일방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완화된 양상을 보인다.

### 서양인과 동양인의 우정

과거 서양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동양인을 조롱하거나 대조적으로 그렸다. 반면 ‘메리디스(서양인)’와 크리스티나는 서로 “너는 내 사람이야.”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우정이다. (S8E19: 지원 체제)

**M:** 크리스티나 좀 나아졌어?

**C:** 응 괜찮아.

**M:** 크리스티나, 말하기 싫은 건 아는데 난 여기 있어. 그러니까 네가 끊고 싶을 때까지 그대로 있을게. 난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

### 자부심

# 크리스티나가 과장님에게 잘보이려 ‘오웬’에게 과장님과 친하냐고 묻는 상황 (S7E17:우리의 방식)

**O:** 내가 힘써 줄 순 없지만, 네가 예쁜 건 인정하지.

**C:** 난 똑똑한 여자니까, 내 머리를 칭찬하라고요!

#크리스티나가 내기에서 이겼을 때 “나처럼 되고 싶지? 그리고 싶겠지만 너넨 절대 안돼.”라며 한껏 자부심 높은 모습을 보인다. (S2E14: 달콤한 거짓말)